



문화매일신문



제1531호

2024/2/7/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

경기도, 2일 소외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 발표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권역 경기서부권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1km²당 도로길이(km))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 9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

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 9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km), 경기옛길(685km), 광역자전거도로(836km)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자, 지역기획자, 시 등이 힘을 합쳐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처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대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44조 원을 북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 34조 원과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총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

김병삼/기자

경북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 4개 시군 선정.. 국비 39억원 확보

거점형 2곳, 마을형 2곳 등 전국 최다 선정.. 거점형은 경북만 유일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에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돼 2026년까지 국비 39억 원을 확보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근로자 주거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거쳐 거점형 2개소, 마을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전국 2개소를 공모한 거점형에는 김천시와 봉화군이 선정돼 경북에서만 유일하며, 마을형에는 문경시와 고령군이 선정돼 전국 최다 선정의 쾌거를 이뤘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농업근로자 주거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용 규모 100명 내외 거점형에는 총사업비 24억 원(국비 12, 지방비 12), 마을 단위의 50명 내외 마을형에는 총사업비 15억 원(국비 7.5, 지방비 7.5)을 투입한다.

거점형에 선정된 김천시는 경북보건대학 내에 지상 4층 규모로 객실 25실과 공용주방, 강당, 휴게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한다.

봉화군은 폐교인 구) 봉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해 지상 2층 규모로 9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21실과 휴게실, 식당, 사무실 등을 짓는다.

마을형에 선정된 문경시는 폐교인 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를 매입해 60여 명을 수용하는 28실 규모의 객실과 공동부엌, 세탁실, 교육실 등을 갖춘 공동숙소를 건립한다.

고령군은 다산면 노곡리에 전체면적 542m²의 2층 규모로 30여 명을 수용하는 객실 15실과 공동주방, 공동세탁실, 공용공간 등을 갖춘 기숙사를 신축한다.

도는 기숙사 건립으로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근로자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영양군은 입면면 일원에 건축 전체면적 1,380m²의 지상 3층 규모로 90여 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난해 11월 착공해 올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화하고 농업 근로자의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공동 주거 공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고용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남도, 태국-인도 시장 진출 참가 기업 모집

19일까지 소비재 수출 증기 대상...4월 시장개척단 파견

전라남도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태국-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전남 방콕-뉴델리 시장개척단'을 파견키로 하고, 참가기업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수출상담은 4월 1일부터 5일간 태국 방콕과 인도 뉴델리에서 아세안 및 인도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충북 등 다른 지자체들과 통합 운영을 통해 풍부한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중심지로서 주변 국가로의 확장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꾸준한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확대로 소비재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국가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억 인구를 보유한 거대 소비시장으로, 6~7%대 고성장을 유지하며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 소재 중소기업 중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타 시·도 제품만 유통하는 기업이나 국제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은 제외된다.

참가 희망 기업은 19일 오후 5시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 해외 시장 진출 준비도 등을 고려해 8개 기업을 선정하며,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이어 매칭, 통역, 코트라 긴급지사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방콕-뉴델리 시장개척단 파견은 도내 중소기업의 아세안 및 인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참가 기업이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세계 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시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북도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경산 하양공설시장에서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위한 장보기 행사 가져

경상북도의회는 2월 6일 설명절을 맞아 배한철 의장, 이철식·차주식·박채아 경산 출신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 하양공설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회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배한철 의장과 도의원들은 하양 공설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미



리 구입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지역특산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한편, 배 의장은 이날 오후 경산시

진량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인 '천사들의 집'을 방문하여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1990년에 개관한 '천사들의 집'은 지적장애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복지시설로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31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산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진량 천사들의집 방문, 위문품 전달 및 관계자 격려

경산시의회는 2월 5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진량을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천사들의집"을 찾았다.

이날 박순득 의장과 의원들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온정을 나누었다.

천사들의집은 장애인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지적장애인거주시설로 26명의 종사자와 31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시설 관계자들

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송광삼/기자



경남도의회 전현숙 의원,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바우처 택시 전 시군 운영해야"

2일, 장애인권익옹호단체와 간담회 가지고 애로사항 청취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일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장애인권익옹호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관련한 제도가 변경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발이 되어주던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광역지자체로 확대됐으며, 이용대상은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했으나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해당 지자체 차량으로 복귀 가능 시 관외 이용이 가능해졌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경상남도도는 지난해 11월말 기준 150명당 1대인 법정 기준대수를 초과하여 390대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도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매우 낮고 지하철 등 대체수단이 없어 휠체어를 이용해야하는 중증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부족으로 인

해 배차 대기시간 지연문제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용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범위와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대기시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숙 의원은 "비 휠체어 이용자 수요가 분산 되도록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행 중이나 도내 10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 확충과 함께 바우처 택시가 조속히 전 시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이동권 제약이 큰 상황으로 지속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도정질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지자체간 원활한 이동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경남 장애인권익포럼에서 수상하는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장재현/기자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부산시 관심 촉구

부산지역 주거빈곤 아동 22,500여 가구 추정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5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정서 결핍 초래하는 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2022년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2만2천5백여 가구가 아동주거빈곤 가구로 전체 아동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 취약 가구 아동은 비취약 가구 아동에 비해 호흡기 질환과 천식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주거 취약 가구 아동은 스마트폰 과의존 24.5%, 주의력 결핍 등 10.9%로 비취약가구에 비해 3배가량 정신건강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23년

5월, 한 가구당 1천만원 이내로,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송우현 의원은 "작은 예산으로 아동의 독립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효과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인데, 24년도 예산 전액 마련성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주거빈곤 아동 문제는 결국 아동들을 키우고 있는 중·장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아동주거빈곤 문제를 부모 책임으로 전가한 채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의 주거복지정책에 집중한 것 아니냐?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동의 주거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과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첫째,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아동 공간 조성 사업 및 집수리, 클린 지원 사업 등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24년도 추경 예산 확보 및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 통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LH 및 도시공사 등을 통해 임대주택 확대 공급, 공공 임대주택 지원, 부산형 주택바우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복지서비스 컨트론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반해 구·군에 주거복지 전달망이 없고 담당 인력은 1명 이하가 13곳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 및 긴급 구호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려면, 구



·군의 주거복지 담당 인력 등 추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아동 주거빈곤은 인생의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박탈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부산시 모든 아동정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세 번째 대구로택시 일일기사로의 변신

2월 6일(화) 10:30 대성교통 소속 대구로택시 운행 체험



경상남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2월 6일 대구시내 전역을 대성교통(동구 신평로 154-2) 소속의 대구로택시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대구시정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한편, 탑승객에게 대구로택시를 홍보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두 차례('23.1.20, 3.3.)의 대구로택시 운행에 이어 세 번째로 운전대를 잡았다.

택시 운행 전 대성교통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택시업계의 고충을 들은 후, 운행 관련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마치고 출발했다.

이날 이 의장은 직접 대구로택시 콜을 받아 운행하며 택시업계의 고충을 직접 체험했다.

또한 의장 직위를 내려놓고 시민들의 생생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한편,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대구시



정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어 점심시간에는 택시센터에 들러 기사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택시 운행의 고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

졌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택시 운행에서 개방화장실 이용의 불편함을 기사분들께 듣고 개방화장실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며, "오늘 탑승

객들이 말씀해 주신 대구시정에 대한 지적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운행을 마무리하고 영업용택시 운전 전에 따른 수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만규 의장은 민생현장 탐방 등 시민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로택시는 2022년 12월에 서비스 출시 이후 대구시 전체 운행 택시(13,536대) 중 82%가 가입에 있으며, 일 평균 7,500여 건의 호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 2023. 12. 31. 기준

윤근수/기자

광주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광주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6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주임록 의장과 허경행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인 은혜동산을 직접 방문해 과일, 쌀, 김세트 등을 전달했으며, 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시설 가족들을 보살피는 시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방문하지 못한 시설(배다니동산)에는 배송을 통해 온정을 나누기도 했다.

이어 시의회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경안전통시장을 방문해 직

접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특산품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 애로사항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주임록 의장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기록적인 한파 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시장 상인을 돕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설 명절은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케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등 우수 지역축제 23개 선정

축제 기획 및 운영이 우수하고 발전 역량이 높은 우수 지역축제 23개 선정

경기도는 축제 기획 및 운영이 우수하고 발전 역량이 높은 올해 우수 지역축제로 2024년 경기관광축제 23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선정된 축제는 ▲가평자라섬페스티벌 ▲고양행주문화제 ▲광명동굴대만민국악인페스티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광주남한산성문화제 ▲군포철쭉축제 ▲남양주광릉숲축제 ▲남양주정약음문화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부천국제만화축제 ▲수원재즈페스티벌 ▲안양출춤축제 ▲양주화암사지왕실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여주도자기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오산야매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파주해이리판페스티벌 ▲파주장단공축제 ▲포천산정호수명성산악새꽃축제 ▲화성시정조효문화제다.

앞서 도는 시군으로부터 30개 지역축제를 추천받아 축제 개최계획에 대

한 발표평가 및 지역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4월 이천도자기축제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장단공축제까지 총 23개의 축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문화 및 지역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심사위원으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는 '레츠고(Let's GO(Green Only)) 산나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축제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오는 4월 산나물진상제 재현극, 산나물 골든벨, 산나물비빔밥 나눔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가진 양평만의 지역 특색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어 화성시 정조효문화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용건릉을 중심으로 현릉원 천원 재현, 현릉원 제향, 정조대왕 효행음식 시연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역사·문화적 가치

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내용으로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축제 23개를 평가 순위별로 등급을 매겨 상위등급 6개는 1억 원씩, 중위 등급 10개는 7천만 원씩, 하위등급 7개는 5천만 원씩 도비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강화하고, 축제장 바가지요금 관련 불평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손님맞이 개선에도 힘을 기울인다.

박영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지역축제가 본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며 "축제는 지역에 중요한 관광자원인 만큼 우수 지역축제가 지속가능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및 부천시의회 의원들, 부천소방서 찾아 소방 현안·정책 소통 행보...시민 안전에 맞손

염종현 의장 및 부천시의회 의원들 부천소방서 방문해 '소방 정책간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부천시의회 경기도의원들이 5일 부천소방서를 찾아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이선구(민·부천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진희(민·부천4) 교육기획위원장, 김동희(민·부천6)·김광민(민·부천5)·박상현(민·부천8)·유경현(민·부천7) 의원 등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부천소방서에서 소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특성에 맞는 각종 소방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와 소방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부천소방서의 초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지준호 부천소방서장 및 간부 직원들과 의용소방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규 재난취약계층 파악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강화 ▲반도체 사업장,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대응 전략 마련 ▲노후청사 개선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 등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소방훈련 및 구조장비 조작 시연을 통해 소방관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뒷받침할 신형 소방 장비 활용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염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故) 박수훈 소방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일선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최근 문경에서 두 명의 훌륭한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



을 잃었다.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최근 화재나 구급·구조에 대한 출동 빈도수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한정된 자원과 환경 속 애로점이 많을 것 같다. 소방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듣고,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천은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아파트도 많다"며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부천 소방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심하게 된다"며 "현장에서 뛰는 소방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발전된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선구 위원장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 중 가장 사명감이 크고, 국민 신뢰가 높은 분들이 바로 소방관"이라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노고가 있기에 부천시민,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한국도자재단 대표와 도자 문화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한국도자재단 최민환 대표와 도자재단의 2024년 주요 사업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 내용, 예산 편성, 공모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국도자재단은 한국 도자 문화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소중한 기관이자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도자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체험과 교육을 확대하고, 전시·행사 등을 경기도 각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도민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직원들의 근무여건 등에 대한 조치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현황과 사업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한국도자재단이 도자 공예문화 확산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영양 들려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푹 빠지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유 위원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도지사 권한 확대 반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5일 안양시 동안평생학습센터에서 경기도가 개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협력위원 및 총괄기획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내용,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이 해소 되길 바란다"며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추진과제와 상생균형·임체복합·AIP도시(Aging in Place) 비전이 담긴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설

명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과 이범현 총괄기획가, 유한호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의 기부채납,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역세권 기준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의 도의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별법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보람 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설명회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중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추진된 것으로 지난 1월부터 의정부시(26일)와 광명시(29일)에서 개최됐고, 이날 안양시를 마지막으로 주민 설명회가 종료됐다.

김범상/기자

영양나들이 홍보 이미지. 길, 물, 빛, 열, 맛, 심, 숲 등 다양한 자연 경관을 소개하며 '영양나들이'를 홍보하는 그래픽 디자인.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와 남이포, 삼계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백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살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박물관, 반딧불이전망대, 영랑생태공원, 영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관, 영랑문화발전단지, 용림산자연휴양림, 영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 2024년 경기관광축제 선정

이천시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2024년 경기관광축제' 상위등급으로 선정됐다.

경기도·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월 30~31일 이틀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23개 시군, 30개 축제에 대해 축제 기획 및 운영이 우수하고 발전 역량이 높은 올해 우수 지역축제를 상·중·하위 등급으로 총 23개 선정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상위 등급 6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지역문화 100선과 7년 연속 최우수 축제의 명예를 이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연속 경기관광축

제 상위 등급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축제로 그 명성을 공고히 했다.

2023년 제22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안전사고 없는 축제 운영과 저렴하고 맛 좋은 먹거리를 통한 축제 물가 안정 등 반복되는 지역축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 관광객이 체감하고 와닿을 수 있는 기획을 통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48)에서 개최된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일반철도 신규사업 반영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서 제출키로

용인특례시는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경강선을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경기 광주역 ~ 용인 남사)을 찾았고, 지난 1월 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가는 이 노선은 37.97km의 일반철도로 용인 이동·남사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47만㎡, 226만평)와 배후도시인 이동을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공공택지지구(228만㎡, 69만평, 1만6000호)가 조성되면 직간접적으로 16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역 활성화 및 복합용지(산업·상업 48만㎡) 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입장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

서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 ~ 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경강선을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경기 광주역 ~ 용인 남사)을 찾았고, 지난 1월 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가는 이 노선은 37.97km의 일반철도로 용인 이동·남사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47만㎡, 226만평)와 배후도시인 이동을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공공택지지구(228만㎡, 69만평, 1만6000호)가 조성되면 직간접적으로 16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시역 활성화 및 복합용지(산업·상업 48만㎡) 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입장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 서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 ~ 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경강선을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경기 광주역 ~ 용인 남사)을 찾았고, 지난 1월 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농업·농촌 건설은 우리에게 맡겨라!!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결산총회 및 임원개선



여주시에서는 지난 2. 6.(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결산총회 및 임원개선을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김현태(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장) 회장이 선출됐으며, 수석부회장 유춘희(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장), 감사로는 백광현(한국4-H 여주시본부 사무국장), 권순우(한농연 부회장)가 선출되어 2024년도 여주시농업인단체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농단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회장은 "그동안 선배 회장들이 다져놓은 업적을 이어받아 새로 구성된 제26대 시임원을 비롯한 9개 농업인단체

및 읍·면·지구 농업인단체협의회 전회원이 지혜와 힘을 모아 여주농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1999년부터 25년동안 이어온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여주시 농업의 리더로서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1999년 조직구성을 시작으로 김현태 회장까지 제26대의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2024년 현재 9개 농업인단체를 대표하며 3,200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로 투표취약계층 참정권 보장한다

수원시,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제5차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



수원시가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관내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수원시 인권위원회, 구·동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수원 YMCA·수원 YWCA·수원나눔의집)와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수원시 전체 투표소(315개) 중 12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5일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관내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를 했고, 현장점검이 필요한 투표소를 선정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이날 화성경로당(영화동), 대한대우아파트경로당(세류1동) 등 투표소 12개소를 찾아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출입구 ▲건축물 내부 ▲기표 관련 시설 등 6개 영역 42개 지표를 바탕으로 투표 시설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투표소 주변 경사로 존재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복도·통로 너비, 승강기·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이었다.

인권담당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평가한 후 개선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17년 4월, 처음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이번이 5번째 평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소 92곳이 변경되거나 개선되는 등 더 나은 투표소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1차 서면평가 결과, 과거 개선 권고를 받았던 투표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거나, 시설물이 개선되는 등 인권영향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 덕분에 수원시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참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적인 요소들까지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망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동탄시티병원원이 지난 5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준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동탄시티병원 주요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 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의료 지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장애인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대상자 발굴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 △지역장애인 건강 관련 상호협력사항 협의 등을 추진 및 지원하게 된다.

동탄시티병원은 화성시 동탄권 의료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병원을 지정되며, △중증장애인 대상 건강관리 계획 마련 △보건소 재활사업 의료 상담 및 교육 지원 △취약계층 미충족의료자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공준식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적 관리 강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장애인 건강 보건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고양시, 건설공사장 안전 강화 위한 CCTV·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독려

작년 11월 조례 제정...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강화 근거 마련

고양특례시가 새롭게 제정된 조례를 통해 건설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섰다.

최근 전국 건설업 사망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의 사망사고 비율이 60%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CCTV를 설치하고 300억 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의 도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해 11월에 전국 최초로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사고 예



방을 위한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건설기술진흥

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에 지능형 CCTV와 스

마트 안전장비 설치를 강력히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민간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광욱 시민안전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건설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건설현장 안전 점검과 안전장비 설치를 독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광주시, 설 맞이 물가안정 및 장보기 행사로 지역상권 활성화 동참

광주시는 6일 설 명절을 맞아 물가안정 동참 캠페인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한 장보기 행사를 경안시장 일대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광주시 문화재단, 기업인 및 소상공인 단체, NH농협은행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광주사랑가드로 제수용품과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상인들을 격려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시제 준수 계도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를 통한 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유도했다.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한 시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보기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크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상인들에게 도움도 주는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설 연휴 9~11일 유료 공영주차장 63곳 '무료 개방'

최대호 시장 “즐거운 명절되도록 생활 분야별 대책 차질없이 이행”

안양시는 설 연휴가 시작하는 9일부터 11일까지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63곳(약 6,000면)을 무료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무료 개방하는 공영주차장은 안양역과 법계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인근으로, 박달시장 노외주차장, 남부시장 노외주차장, 평촌 지하주차장, 인덕원동 노외주차장, 동편마을 지하주차장 등이다.

시는 설 준비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월 정기권 전용 주차장으로 운

영하고 있는 4곳(관악역 1환승·석수 대형화물·인덕원동 공업부지 노외·안양 6동 2노외)은 기존대로 유료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무료 개방 공영주차장 63곳에 대한 위치, 주차면수,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정보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안전 등 생활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분야별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열어

성남시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지정 아동친화도시 4년 차를 맞아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한다.

시는 2월 6일 오전 10시 시청 탄천관에서 이진찬 성남부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오는 6월까지 19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 성남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2021년 8월 30일 이후 4년간의 변화

와 이행 성과를 분석해 더욱 고도화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아동 관련 일반 현황과 사업 현황 조사 ▲학교밖 아동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17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아동권리 증진 근거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친화 인식 수준 파악과 아동의 요구 사항 도출을 위한 시민의견수렴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성남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최근 4년간 추진해 온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 아동참여단 운영 등 25개 전략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 정도를 진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위 단계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고, 4개년(2025~2029년)계획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짤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김범상/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금년 대기업 유치, K-컬처 허브기반 구축, 신도시 인프라 조성 분야에서 성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하남시는 6일 제7회 시민참여 주간 회의를 개최하고 '대기업 유치 및 K-팝 허브 도시 조성', '권역별 주요 인프라 확충 계획' 등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참여 주간회의에서 ▲대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 ▲2024 주민과의 대화 결과(참석인원 1만747명, 건의사항 243건) ▲지하철 9·3호선 적기 개통 추진 및 GTX-D,F 신설노선 발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용역 추진 ▲권역별 주요 인프라 확충 등 현안을 시민들과 논의했다.

먼저 이 시장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건설 비전을 소개하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2021년)을 보면 하남시는 약 2천700만원으로, 서울시 강남구(1억5천500만원)와 비

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올해 12월 롯데의료재단의 '보바스 병원'(241개 병상 보유 / 재활의학·내과·신경과 등)이 개원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진료 및 응급환자 수용이 가능한 300병상 종합병원 개설과 프랜차이즈협회(회원사 178개, 사무실 기매입) 유치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선 8기 하남시는 ▲기업유치센터 신설(원스톱처리서비스)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의 생산품 설치·시공을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 허용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중견기업 서희건설과 PXG의 골프용품 생산·판매사인 카네·로저나인 R&D 센터 유치

성공 등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 시장은 K-팝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하남시는 지난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자유치 패스트트랙(기존 42개년 이상→21개월 단축) 지원 대책을 이끌었다”며 “하남시는 올 한해 지속적인 기업투자 유치와 K-팝 허브 도시 조성, 신도시 주요 이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서울 편입과 관련한 진행 상황도 보고됐다.

'하남 서울 통합 특별법안'과 '위례신도시 통합 특별법안'을 소개하고, 실무협의 결과도 보고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위례동 주민의견 통지에 따라

경기도, 송파구에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와 송파구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서울 편입과 관련해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서울 편입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생활인프라 조성 계획도 공유됐다.

지난달 26일 국토부 장관 면담에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하남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토부 장관 말을 소개하면서 지하철 9호선, 3호선 연장사업을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생활인프라와 관련해선 올해 원도심과 미사숲공원 내 황톳길을 확충

하고 미사호수공원 테마공원(장미정원 및 관목원 등) 및 파크골프장(36홀 예정)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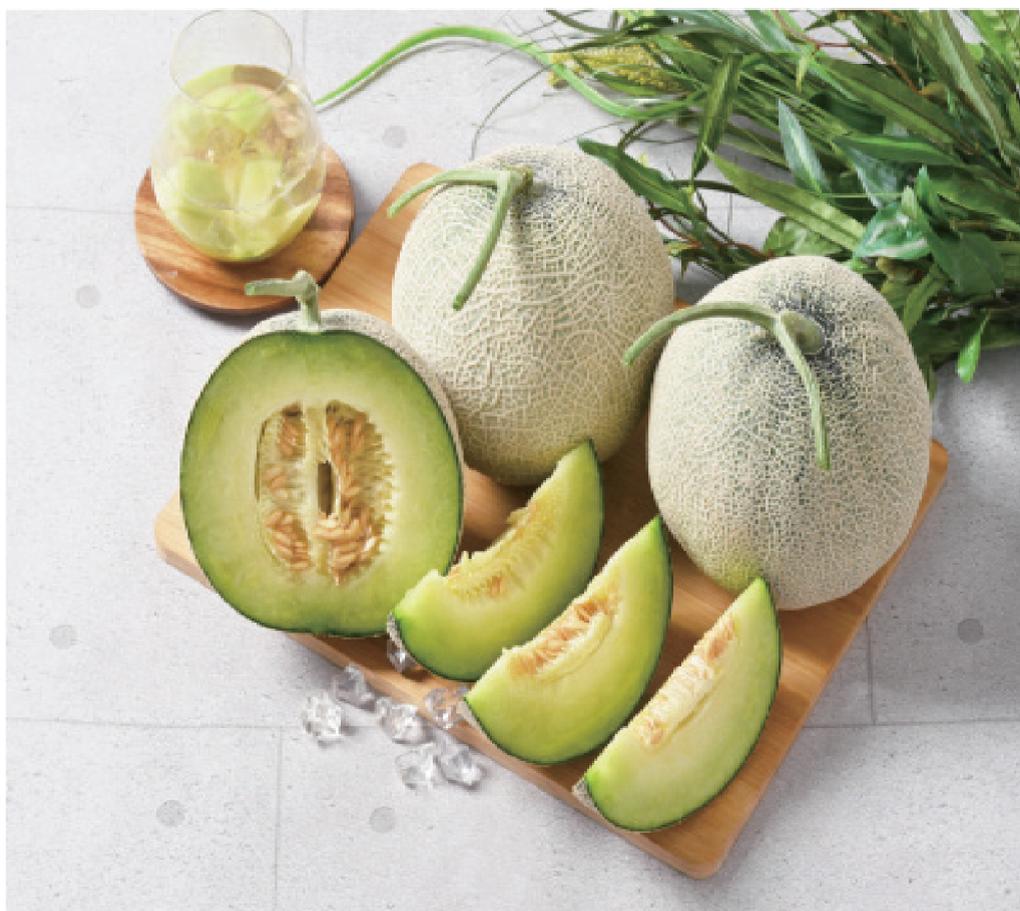
아울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2024년 권역별 인프라 확충·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하남시는 ▲중합복지타운(4월 개관 예정) ▲덕풍 스포츠문화센터(8월 준공 예정) ▲감일 공공복합청사(감일청소문화의 집 3월 개관 예정) 개관 ▲학암천 정비사업(상반기 착공 예정) 시행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추진 ▲위례근린4호공원 인공폭포 조성(6월 준공 예정)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진행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 ▲한강진입 보행통로 개설 및 보완(하반기 공사 착공) ▲위례 숲속도서관 건립(3월 추진) ▲한강 제방 산책로 유지관리 계획 등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검찰이 최근 감일지구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해 관련 혐의자들을 기소했는데, 이

런 상황에서 감일 종교부지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대표의 요청에 대해서는 “하남시는 LH에 추후 판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해 적기에 조치를 취하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다만 기소로 인한 공사 중단은 LH에 권한이 있고하남시가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전국 최고급 멜론

세지 멜론

전남도, 설 연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총력

비상대응체계 유지, 명절 전·후 일제 소독, 대국민 방역수칙 홍보



전남도는 설 연휴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설 명절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즉각적인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설 연휴 기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시작 전 8일과 연휴 다음날인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소독차량을 총 동원(170대)해 농장·축산시설·차량 일제 소독을 한다. 일제 소독의 날에 맞춰 시군에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및 농가 진입로,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해 가용 가능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소독한다. 또한 농가 경각심 제고와 확산 차단을 위해 재난 자막방송 송출, 마을방송, 마을입구 등에 현수막 게시, SMS 발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장비를 이용해 소독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축산시설에서 내·외부를 꼼꼼히 소독한다. 특히 가금농장에서는 매일 농장 첫출입할 때와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해야 한다. 또한 전남지역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사람 및 분뇨 등에 의한 전파 위험성을 감안해 12일까지 외부출입자(백신접종팀·상하차차반 등) 출입 및 분뇨 배출 이동을 전국적으로 통제, 운영한다. 귀성객이 고향 방문 시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낚시와 탐방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가금농장에서는 명절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주 및 외국인 근로자 간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

아신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매일 가금의 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철새 도래 상황 및 소독 여건 악화 등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귀성객은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에서는 출입통제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가금계열사에서는 매일 계약사육농장의 가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농장 소독, 출입자 관리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경기 1, 충남 2, 전북 18, 전남 8, 경북 1 등 5개 도의 가금농가에서 30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고흥 1, 영암 2, 무안 3, 장흥 1, 보성 1 등 5개 시군에서 8건이 발생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23년 만에 새로운 상징물 CI 선포식 개최

세계화, 글로벌 마케팅 등 시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 담아 순천의 새 시작 알려

순천시가 CI(Corporate Identity)를 본격 교체했다. CI는 기관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대표적 상징물을 의미하는 말로, 이번 CI 교체는 2001년 기존 심벌마크 도입 후 23년 만이다. 신규 CI는 세계화, 글로벌 마케팅 등 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담아낸 워드마크로 최종 결정됐다. 낙안읍성을 모티브로 한 기존 CI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당시 도시 비전을 강조하고 있어, 순천만의 높아진 브랜드 가치와 정원박람회로 달라진 도시 위상을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CI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순천시 상징물 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본격적인 CI 개발에 착수했으며, 공청회, 선호도 조사, 공공디자인 심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규 통합브랜드를 확정했다. 워드마크 속 'S'는 순천만 습지 물길과 힘차게 날아오르는 흑두루미를 상징하며, 휘감고 있는 형태의 'C'는 문화, 관광, 경제, 복지 등 전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E'는 순천의 대표적인 산인 '봉화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자부심을 나타냈다. 색상 역시 순천을 상징하는 자연의 색으로 구성했다. 흑두루미 블랙, 오천광장 그린, 순천



순천시 CI 선포식 현장. 흑두루미 블랙, 오천광장 그린, 순천

함평군,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전남 함평군은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상의 함평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읍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축제 전반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나비대축제 기간 어린이날 등 연휴가 포함돼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및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축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축제는 나비날리기 행사 확대와 어린이날 각종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과 행사를 추진한다. 나비콘서트, 봄의 교향악 등 나비 테

마 특별 이벤트와 함께 함평추억공작소 특별관, 나비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생태습지공원에서는 나비수수건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배정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나비대축제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김영진/기자



함평군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계획 보고회 모습.

서울 강남구청 직원들이 꼭 짚은 명절 선물 "역시, 나주배"

나주시와 작년 10월 자매결연 ... 나주시장 품질인증배 416박스 주문

나주시 자매결연 지자체들의 나주 농산물 사랑이 뜨겁다. 명절 선물, 저녁식재료로 나주배와 로컬푸드 꾸러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은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올해 설 맞이 선물로 5kg나주배 416박스(2천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양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농업, 관광,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도모해오고 있다. 강남구 직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나주배는 나주시장 품질보증제가 적용된

'천년이름 나주배'이다. 나주시장이 맛과 품질을 공인한 배 브랜드 상품으로 생산조절제 무처리,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 색깔, 신선도 등을 엄격히 선별해 더 아삭한 식감과 풍부하고 달달한 과즙이 일품이다. 안전하고 신선한 산지 먹거리인 나주 로컬푸드도 호응이 좋다. 나주시 교류도시인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종로구 등에서 지난해 직거래 장터를 통해 1억6천만원 상당 농특산물을 판매했다. 나주에서 도출한 삼겹살, 한우와 농산물로 구성된 로컬푸드 꾸러미의 경우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만 1181세트를 팔아 3370만원 상당 매출을 달성했다. 인근 자매도시인 광주 남구 소재 로컬푸드 협력매장에서도 작년 한 해 17억4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매결연 수도권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나주배 등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인지도 상승은 물론 판매를 통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각적인 마케팅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나주시장 품질인증배 416박스 주문.

남원시, 곤충산업 분야 보조사업 신청하세요.



남원시 곤충산업 분야 보조사업 신청처.

남원시는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이며 미래신성장 산업의 핵심인 곤충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올해 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5개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곤충산업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오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신청받으며, 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및

농법법인이다. 곤충분야 주요 사업은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곤충사육시설현대화 등이다. 시는 접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오는 2월 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축산과 곤충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육시설 개선과 기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곤충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곤충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 소득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제52회 강진청자축제 음식관 판매음식 시식회 개최

강진군은 오는 제52회 강진청자축제에 참여하는 음식관 판매음식 시식회를 5일 강진읍사무소 3층 조리실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식회는 강진청자축제 기간동안 바가지 요급 근절과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음식관에서 판매될 메뉴를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진청자축제 음식관에 입점은 4개 업체가 참여, 각 업체의 판매메뉴 2~3종을 선보였다. 강진목은지를 활용한 돼지고기 김치국밥과 돼지고기 김치전, 낙지초무침, 전복해물전, 어린이 메뉴인 떡볶이, 전복양념꼬치 등 다양한 메뉴가 마련됐다. 시식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축제장 음식관 메뉴 선정에 있어 매년 한계가 있었

다"며 "강진 특산물과 제철음식을 활용한 음식을 선보여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목은지 관계자는 "음식은 축제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관광객들에게 강진청자축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이번 강진청자축제장 음식관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관광객들이

음식 주문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더할 방침이다. 강진청자축제는 청자의 고향, 강진의 대표 축제로 오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에서 열린다. 흙, 사람 그리고 불이라는 주제로 청자 체험, 기념품 판매,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추윤호/기자



2024년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 현장.

구례 군의원 의정 활동비,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 의정 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를 매달 최대 4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월 2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기호 전 구례군의회 의원, 김용재 전 구례군 공무원,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서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지난 20년간 의정 활동비가 동결됐다, 국회의원에 비해 군의원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월

동비로 만족스러운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재들의 의회 등용을 위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등이 거론됐다.

한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스스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상한액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문제보다 지자체에게 치우친 권한을 지방의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 의정 활동비 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 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당초 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례군의회는 구례군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 활동비 확정 결과를 접수하면 오는 3월 중 조례를 개정해 인상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현/기자



장흥군, "2024년 기준완화 복지급여 신청하세요"

장흥군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개별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2월 29일까지 1개월간 집중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 대비 6.09%로 인상(4인 가구 기준, 현행 540만964원 → '24년 572만9913원)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을 대폭 완화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298원 → '24년 183만3572원)로 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

300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또한,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을 확대했다.

일반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동일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 재산 기준도 더욱 완화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됐다.

변경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자세한 상담과 복지 서비스 신청은 복지포털(복지포털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 가구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비용 지원 제도 시행 24년 만에 최대 인상 - 약 10만 명 신규 혜택

하나,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6.09% 올리고.

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율
1인	2,021,829원	2,145,179원	6.09%
2인	3,421,829원	3,621,829원	5.85%
3인	4,421,829원	4,671,829원	5.66%
4인	5,421,829원	5,721,829원	5.54%

둘,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로 한 번 더 올려서.

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율
1인	1,512,179원	1,572,179원	3.97%
2인	2,512,179원	2,621,829원	4.38%
3인	3,512,179원	3,671,829원	4.55%
4인	4,512,179원	4,671,829원	4.66%

셋, 내년 생계비 지원은 4인가구 기준 월 21만 3천 원이 많아집니다.

가구	2023년	2024년	증가율
1인	1,512,179원	1,572,179원	3.97%
2인	2,512,179원	2,621,829원	4.38%
3인	3,512,179원	3,671,829원	4.55%
4인	4,512,179원	4,671,829원	4.66%

전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 설명절기간 체험 가득

설 연휴기간 2월 10일(설날 당일) 제외하고 정상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설날 당일(2월 10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에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테마체험관과 실용연구단지 그리고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단지로 최근 테마체험관을 새롭게 단장해 손님맞이를 하고 있다.

테마체험관은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된 1층부터 3층 순서로 관람하며, 다양한 게임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 시설이다.

1층에서는 프리쇼 영상을 통해 블랙아웃(정전) 현상을 간접 경험할 수 있으며, 2층에서는 8개의 재생에너지와 2개의 신에너지를 증강현실(AR) 및 게임(VR)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미래도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체험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체험이 완료된다.

미래세대에 중요한 대체에너지를 소개하는 신재생에너지 테마체험관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마지막 입장시간은 오후 3시 30분이고, 스토리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별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사전예약이 필수이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또한 단지 내 2023년 6월 개관한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메타버스 기술관, 메타버스라이프관, 가상세계를 총 3개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 실감 메타버스 콘텐츠와 가상융합기술을 즐길 수 있다.

오백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체험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즐거운 설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인구감소 대응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

공모 주제 '생활 인구 확대, 청년 인구 유입 등' 3월 26일까지 접수

완도군은 2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50일간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인구 정책' 공모 주제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워케이션(workation·휴가지 원격 근무) 등 생활 인구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이다.

'청년 정책' 공모 주제는 청년 일자리(취창업) 창출 방안, 교육, 주거, 문화생활 지원, 청년 인구 유입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군민뿐만 아니라 완도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서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군은 실무 부서 및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1명(7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장려상 3명(각 30만 원), 노력상 4명(각 1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 및 시상금 지급은 4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2024년도 인구·청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완도군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기간: 2. 5.(화) ~ 3. 26.(화) / 50일간
 참여대상: 완도군 지역발전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모주제: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 위기극복 아이디어

대상: 1명(100만원), 최우수상: 1명(7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3명(각 30만원), 노력상: 4명(각 10만원)

접수처: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 (☎061-550-6992)

목포시, 폐(불용)의약품 배출 방법 등 홍보 강화

홍보물 배부, 경로당 방문 교육 등 다양한 채널 통해 배출방법 홍보

목포시가 폐(불용)의약품 분리배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분리배출을 통해 소각 처리한 폐(불용)의약품은 2,080kg로 해가 거듭될수록 분리배출된 폐의약품 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약국 118개소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점검하고,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물을 배부하며 시민들이 잘 보이는 약국 정문쪽에 게시하고, 약사님들의 폐(불용)의약품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 팝업존 게재, 버스정류소시스템(BIS) 등의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을 찾아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알약의 경우 겔포장재(종이상자)만 제거 후 속포장재인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된 알약은 미개봉 상태로 배출

▲물약은 용기째 마개를 잠근 후 비닐봉지 등으로 이중포장하여 배출 ▲연고 등 특수용기는 겔포장재(종이상자)만 제거 후 마개를 잠그고 용기째 배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현재 시 보건소, 하당보건지소, 관내 약국을 통해 폐(불용)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폐의약품의 방치는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싱크대, 화장실, 일반 쓰레기봉투 등으로 버려질 경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식수와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폐(불용)의약품 분리배출이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차(茶)가 살아야 보성이 산다! 1부서-1다원 자매결연 협약

보성군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인 '보성녹차'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전통차농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차 산업의 제2 부흥기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다.

대한민국 차 주산지인 보성군은 5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보성군청 공무원 1부서-1다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철우 군수와 임용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보성군청 21개 부서장과 16개 차 체험다원 대표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보성군 역대 최초로 지역 차 농가와 공식 협업을 통해 차 상품 개발·육성·지원 체계와 국내 차 산업 거점을 만

들어 나갈 민간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다원은 군 지정 차 체험장을 운영하는 제다업체로 가막재다원, 골망태다원, 보림제다 등 모두 모범적으로 차 농사와 차 문화를 펼쳐온 농가들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상생 다원 상품 구매 협조 및 일손돕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보성차산업 발전 공동 대응 등이다.

상생 다원은 보성군 역점 시책인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의 확장형인 '문화600'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장애 등)과 지역민에게 차 나눔 및 차 체험 프

그램을 지원해 다양한 문화 나눔 활동을 펼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보향다원 최영기 대표는 "보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차를 통해 선순환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라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건강을 돌보는 보성 '문화600' 모델을 잘 만들어서 보성 전체가 따뜻해지는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차가 살아야 보성이 산다!'라는 일념으로 함께 협업해 나가면 차 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농가와 상생, 협업, 나눔의 대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

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1월 17일 경남 하동군과 '자매결연' 맺었다. 양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부흥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우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원영/기자



경북도, 수도권 자동차 전장부품 중견기업 경주에 첫 투자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 제조 회사 덕일산업(주), 경주에 전기제어장치 공장 건립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자동차 전장부품의 글로벌 공급사를 유치, 경북 동남권 자동차부품 밸류체인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장부품 클러스터를 경주시 전체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집적화에 나선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6일 덕일산업(주)와 경주시청에서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덕일산업(주) 유기덕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용 전장부품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덕일산업(주)는 2026년까지 경주시 검단일반산업단지내 20,000㎡ 부지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차량용 시트 파워 모듈 스위치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 및 전기차용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하고 8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93년에 설립된 덕일산업(주)는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 제조 회사로 국내는 HKMC(현대자동차그룹)를 비롯한 다스, 리어코리아, DSC, 현대엠시트, 현대트랜시스 등을 주 고객으로 두고



해외 고객으로는 GM, 도요타, 테슬라, 스텔란티스, 타타모터스, 리비안 등이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에 본사, 화성에 연구소, 필리핀에 생산 법인을 운영 중인 30년의 업력을 가진 중견기업이다.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2020년부터는 전기차 부품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

슬라, 리비안 폭스바겐 등 해외 자동차 시장에도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달 200만 개 이상의 전동스위치를 생산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경주 외동지역에 집중된 자동차부품 산업을 경주 북부권인 안강지역까지 확대해 나가 자동차부

품 산업클러스터를 경주시 전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며,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유치를 통해 경주시 전체를 미래형 자동차부품 기지로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지역 사회에 기대감을 불러 넣고 있다.

덕일산업(주) 유기덕 대표이사는 "이번에 투자되는 경주공장은 엄격한 품질 관리로 선진화된 생산라인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실험장비를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운영하여 매년 20% 이상의 R&D에 재투자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 중심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할 계획으로, 향후 신설되는 공장에는 경주시민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산업의 발전 주기가 너무 빨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다며,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 덕일산업(주)에 감사하며, 덕일산업(주)이 전장부품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근수/기자

지역 공공기관 임직원 '대구로, 대구로택시' 활성화 적극 참여

12개 이전공공기관-대구광역시, '대구로 및 대구로택시' 활성화업무협약 체결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12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대구로' 및 '대구로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 6일 오후 2시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중앙교육연수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참여했으며,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을 대신해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 밀착형 공공지원 법인 대구로 및 대구로택시 활성화에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대구 이전공공기관도 어려운 택시 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월 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대구로택시 비즈니스서비스'는 이용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출퇴근 및 기관 출장 시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혁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2년 12월 시작한 대구로택시는 월평균 호출 23만 건, 택시 호출시장 점유율 16%를 달성하고 전체 운행 택시의 83%인 11,158대('23.12월 말 기준) 가압 및 승객 만족도 95%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형 앱으로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공공 플랫폼과 실질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는 누적 회원수 51.4만 명, 주문액 1,385억 원, 가맹점 1.7만 개를 기록하는 등 대구광역시의 독자적 플랫폼으로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21.8월 출시 이후 '23년 말까지 민간 앱 대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 81억 원 이상 절감해 지역자본의 역대 순환을 촉진하고, 결실아동에게는 배달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누적 54,656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이어오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날 체결된 이전공공기관 이외에 '24년 2월 말까지 9개 구·군 및 4개 지방 공사·공단, 8개 출자출연기관, 대구지역 내 특별지방행정기관, 대구교육청과도 업무협약을 확대·체결해 지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구로 및 대구로택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월 1일부터 '대구로페이' 7% 할인판매와, '대구로' 연계 5% 추가 할인도 개시돼, 대구로 및 대구로택시 이용자는 '대구로페이'로 결제 시 총 12%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가입 고객에 대한 5,000원 할인쿠폰 발행 등 이용활성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출시 이후 대구로 및 대구로택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는 대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대구로 및 대구로택시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기관 임직원을 중심으로 참여·홍보를 강화하고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지난 1일 발생 홍역환자의 추정 감염원 파악... 추가 전파 차단 총력

역학조사 통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접촉자 1명 확인... 진단검사 통해 홍역 양성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 통해 첫 번째 환자와 동일한 홍역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확인

부산시는 지난 1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40대 홍역 환자 1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정 감염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시는 환자의 홍역 잠복기간 사이 접촉자 가운데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접촉자 1명을 확인해 홍역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진단검사 결과, 해당 접촉자는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추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첫 번째 환자와 동일한 홍역 유전자형(해외에서 유행중인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파악한 두 번째 환자(추정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며, 이 환자의 증상은 현재 호전된 상태다. 시는 그간의 감염병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담당 보건소와 경남권질병대응센터 등 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된 덕분에, 신속하게 역학조사 수행에 추정감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첫 환자와 두 번째 환자(추정 감염원) 모두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접촉자 파악 그리고 모니터링 등의 관

리를 빈틈없이 할 수 있었다.

또한, 시는 의료기관에 홍역 조기 인지 및 신고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을 다시(2.5.) 하는 등 홍역 확산 방지에 계속해서 총총하게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 대응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하고,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협조해주신 덕분에 빠른 조치를 할 수 있었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 발생 시 불편하시더라도 역학조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홍역뿐 아니라 현재 유행 중인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침예절,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실시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를 누리세요~

청송군은 지난 2월1일부터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올해 청송군은 주민 1,928명에 대해 총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1인당 연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6세 이상(2018. 12. 31.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2만원 증액된 1인당 13만원으로 문

화누리카드를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쉽게 발급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사업은 문화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총총한 문화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의성북부초등학교 소규모 옥외 체육관 개관

지난 5일, 행복한 급식소와 꿈터관 문열어

의성북부초등학교는 지난 5일(월), 소규모 옥외 체육관 '꿈터관'과 행복한 급식소 준공에 따른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는 의성교육지원청 박명호 교육장, 의성북부초등학교 총동창회 관계자, 의성읍장 및 이장, 학부모, 전교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의성북부초등학교는 그동안 체육관이 없어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급식소 또한 오래되고 낡아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21년 12

월에 체육관 건립을 신청하게 되었고, 작년 6월 말에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12월 14일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받을 수 있었다. 체육관 및 급식소는 지상 1층 건물로, 체육관 291.97㎡, 급식실은 103.13㎡로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경상북도교육청 특별회계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었다.

꿈터관이라는 이름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여한 체육관명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꿈을 키워 나가자' 라는

뜻을 담은 5학년 전진(여) 학생의 공모작이었다.

개관식에 참여한 김주형 읍장은 "의성북부초등학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체육관이 완성되어 기쁘고 학생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교육 활동을 하고 꿈을 키우게 될 것을 기대하며 지역의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라면서 개관을 축하했다.

정금자/기자



설 선물 아직이라면, 영양고추!!!

경북 영양군은 고추의 주산지라고도 불리며, 하늘에서 보면 푸른 녹음으로 가득한 산과 논, 밭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이고 전체 농가의 40% 이상이 고추농사를 짓고 있다.

영양군은 지금 고추 파종이 한창이다. 파종이 끝난 뒤, 이른 봄 서리를 피하고 늦서리가 가면 길게 늘어놓은 검은 비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고 충분히 관수한 후에 모종을 심는다. 병충해를 이겨내기 위해 고추심기 후

보름에서 20일 사이 웃거름을 주어 영양분을 시기적절하게 흡수하도록 해주며, 땅이 말라 건조하지 않게 물도 주어 가며 키워야 한다. 관수시설이 발달한 요즘은 물에 비료를 섞어 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6월부터는 관리에 집중하여 수확하기까지 많은 정성을 쏟는다.

식탁으로 올라가기 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품의 가치와 품질의 보증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는 미국 FDA 인증, GAP 지정, HACCP 등 엄격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고추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어 다양한 맛과 용량의 '빛깔찬'고추가루와 '빛깔찬'고추장을 만날 수 있다.

고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지만 영양고추의 명성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맛있게 매운맛이 있기 때문이다.

매우먼서도 당도가 높아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맛을 가지고 있으며, 영양고추로 만든 고춧가루는 적게 사용해도 진한 맛을 낼 수 있어 음식을 만들 때 쓰임새가 다양하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문경돌리네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으로 세계적 가치 인정 받아

경북도.. 문경 돌리네습지를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본격 조성

문경시 산북면에 있는 '문경 돌리네 습지'가 지난 2일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지정하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람사르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적인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지정·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를 말한다.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2020년부터 문경 돌리네 습지의 생태·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람사르 습지 등록을 준비했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람사르사무국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신청했고, 람사르사무국의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등록됐다.

문경 돌리네 습지는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형에 습지가 형성된 세계적으로 희귀한 습지로 원앙, 소쩍새 등 천연기념물과 수달, 담비, 삿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해 93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2017년 환경부에서는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문경 돌리네 습지는 지난 해 6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에 선정되어 올해 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지질명소 해설프로그램 운영, 홍보, 탐방 기반 시설 확충 등 인증 필수 요건을 충족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세계 람사르습지 도시 후보지에 선정되어 2025년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총회의 최종 인증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체류형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문경 돌리네 습지는 세계적인 명품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최초 람사르습지 등록을 계기로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습지의 생태관광 자원화를

적극 추진한다.

도는 문경 돌리네 습지 탐방지원센터를 올해 차질없이 조성해 관광객들에게 습지의 세계적 가치와 생동감 있는 습지 생물을 연출하는 파노라마 전시실, VR/AR영상 체험 시설, 카페, 야외정원 등을 마련해 자연을 느끼며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문경 돌리네 습지 뿐만 아니라, 2011년 국내 논습지 중 최초로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상주 공검지를 생태관광 명소화하고,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영양 장구메기 습지를 올해 상반기 중 환경부로부터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현태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근원지이며 교육·문화·관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람사르습지 등록을 계기로 앞으로 자연·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북이 생태관광 거점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쓰고·좁고 상쾌하게!! 동래구, 설맞이 환경정비 실시

공무원,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 참여 설 연휴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

부산 동래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31일 오후 3시부터 '설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맞이 대청소는 동래구 직원은 물론 국민운동단체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래역 환승센터에서 깨끗한 동래 만들기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환경정비를 통해 동래구 주요 관문 도로 및 가로화단 내에 투기된 쓰레기와 불법광고물을 제거했으며, 13개 전동에서는 동별 불결지를 선정하여 주민과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2024년 새해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래 구

곳을 쓰고·주우며 청소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동래를 찾는 많은 분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동래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환경정비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다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래구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민원 해결을 위해 오는 9일부터 4일간 청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기동순찰반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와 특별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희태/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방문

안동·예천선거구 존속 촉구 건의문 전달

안동시의원, 이통장연합회, 시민단체들도 함께 동참

정치권에 휘둘림없는 중앙선관위 고유권한으로 향후 지역구 운영 윤희리를 따져 최소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최적안을 발표해, 더는 감감이로 치닫지 않도록해야



안동시 권기창 시장과 안동시의원, 안동시 이통장연합회 및 시민단체 회원 60여 명은 지난 6일(화) 1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방문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 단체회원들은 기존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여·야 잠정 합의안에 대해 안동·예천 선거구를 존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요구는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어져,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행정구역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경북도청을 함께 공동유치한 안동·예천 선거구의 상황을 강조하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과 예천은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와 함께,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의 상생·화합·발

전을 위해 시·군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안동·예천선거구를 단일화시켰으며,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안동시의원들도 "예천이 의석, 청송, 영덕 선거구에 편입되면 경북을 절반으로 가르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한다"라며 "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통장연합회는 "지난 10여년간 안동과 예천이 협력하여 경북도청 신도시의 10만 거주도시 건설, 경상북도 행정의 중심도시이자 경북북부권 거점도시로의 성장을 향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며 "안동·예천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은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원하는 지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예천통합추진위 등 시민단체에서도 "안동과 예천은 신도시로 함께 묶여 있어 선거구가 분리되면 지금껏 상생·화합한 노력이 희석되며 경북도청 신도시의 북부권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변모에 지장이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동과 예천의 이원화된 행정구역으로 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선거구가 분리되면 양 시군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동·예천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하는 안에 대해 권기창 안동시장

은 지난 1일 안동·예천 행정구역통합신도시추진위원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안동·예천선거구 존속 촉구 기자회견을 했고, 안동시의회도 경북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안동시 주민자치회,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이번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양 시군 상생발전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에 대해 강력히 반대여사를 밝혔고 이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이곳 안동·예천은 비록 2개 시군이긴 하지만 한지붕 두가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체계, 상생발전 요소 등 모든 것이 양뿔나바퀴가 물려돌아가고 있는 지역구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칭한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예천군이 분리됐을 때와 울진군이 분리됐을 때를 놓고 냉정한 잣대로 들여다 보면서, 결코 그 어떠한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하지 말고 오직 중앙선관위의 고유권한으로 어떠한 방안이 지역구 분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철저히 검토해, 공식 발표하므로써 감감이로 치달며 온갖 낭설이 퍼트려지고 있는 현안국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줘, 이제 곧 결정될 중앙선관위의 지역 선거구 발표 결과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자동차 부품기업 '덕일산업'과 450억 투자 MOU

2026년까지 경주안강 검단일반산단內 공장 신설

국내 강소기업 덕일산업이 경주시 안강읍에 신규고용 80명을 창출하는 전자부품공장을 짓는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덕일산업(주)와 450억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덕일산업(주) 유기덕 대표이사,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덕일산업은 경주시 검단일반산단단지 내 2만㎡ 부지에 내연차 및 전기차용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 공장을 짓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45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차량용 시트 파우 모달 스위치를 포함한 전기차용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 등을 생산한다.

또 신규 인력 80여명을 채용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할 예정이다.

덕일산업(주)는 1993년 설립된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 기업으로 국내는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다스, 리어코리아, DSC, 현대엠시트, 현대트랜시스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견기업이다.

특히 덕일산업은 GM, 도요타, 테슬라, 스텔란티스, 타타모터스, 리비안 등에도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 본사가 있고, 화성에

는 연구소, 필리핀에는 생산 법인이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2020년부터는 전기차 부품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지난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아 국내외 자동차 부품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덕일산업(주) 유기덕 대표이사는 "이번에 투자되는 경주공장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선진화된 생산라인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실험장비를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중심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시장을 선도할 계획으로, 향후 신설되는 공장에는 경주시민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덕일산업(주) 유기덕 대표이사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시는 앞으로도 안강읍 검단일반산단을 자동차 부품 등 전문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과 함께 경주시가 구축한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를 통해 다양한 기업지원과 함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예천군, 본격적인 산불예방체제 돌입 발대식 가져

2.5. 산불감시원 발대식 '산불 없는 청정고장' 목표로 결의 다져

예천군은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산불 청정고장을 목표로 봄철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5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읍·면산업팀장 등 14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결의를 다지는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산불방지활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2023년 11월 1일 설치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방지대책 수립 등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2 ~ 3월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산림 인접지 농산폐기물 수거 및 파쇄지원 사업을 통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를 사전 임차하여 현장배치하고 있으며, 등짐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여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대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예천군 김학동 군수는 "산불 예방 활



동 강화로 무엇보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경북도,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최대 569억원 투입

태양광 설비 보조금 최대 70~80%, 경로당은 100% 지원, 에너지복지 실현

경상북도는 올해 도민 생활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역에너지기업 육성 등 569억 원을 투입해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설비에 최대 80%, 복지시설(경로당)에는 100%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사업 등을 진행한다.

우선,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도내 13개 시군이 선정돼 주택 등 3,960개소에 36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하나의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에너지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다.

대상 건물은 선정된 읍면동의 주택, 상가,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거의 모든 건물이 지원 대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은 국비, 지방비 등 80% 정도가 지원되고 건물 소유주는 20% 정도만 부담하



는 전국 지자체별 공모사업으로 30% 정도를 자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보다 주민 선호도가 높다.

경북도는 2014년 울릉군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2,000여억 원을 투입해 주택 등 2만 1,000여 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했고, 올해에도 민·관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 공모·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양

한 주민수익형 사업을 포함한 2025년도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시군과 함께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는 올해 1,849개소에 총 125억 원이 투입되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에너지원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지방비 지원 기준이 2~3월 중 결정

되던 한국에너지공단의 경북 소재 참여 기업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방비를 지원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올해 복지시설(마을회관)과 중소기업 341개소에 75억 원 등 태양광, 태양열(온수/난방)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982개소에 보급했다.

마을회관 태양열은 등유사용 보일러 기준으로 연간 260만 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되며, 태양열 온수 사용 농산물 건조기는 전기 사용 농산물건조기 대비 81% 정도 소비전력이 절감된다.

김병곤 경북도 동해안전락산업국장은 "우리 도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환경 여건이 좋다"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에게 수익이 공유되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도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새마을회, 화재 피해가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앞장

청송군은 지난 3일, 청송군새마을회(회장 권동준)에서 최근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방문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월 31일 파천면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가구는 주택이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를 돕기 위해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섰다.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하여 마을의 빈집을 연계해 주었다.

빈집은 몇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환경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청송군새마을회에서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청송군새마을회에서는 빈집을 청소

하고, 도배와 장판 교체 및 전기·보일러 수리 등의 지원을 통해 화재 피해가구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었으며, 파천면새마을회에서도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前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활동했던 피해 가구의 세대주는 "도움을 주신 청송군과 새마을단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들과 봉사단체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다함께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 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청송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제 1,2차 2024 KBO Next-Level Training Camp 종료

리틀야구 우수선수, U-12 우수선수 대상 합숙 훈련 기장-KBO 야구센터에서 18일간 진행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리틀야구/U-12 우수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진행된 제1,2차 '2024 KBO Next-Level Training Camp'가 오늘(6일) 1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종료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유소년 선수들의 야구 기본기 습득 및 기술 향상을 위해 KBO 재능기부위원 7명이 지도자로 참가했다. 장중훈 감독과 김용달 타격코치, 윤학길, 차명주 투수코치, 강성우 배터리코치, 류지현, 장원진 수비코치가 선수들을 지도했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장중훈 감독은 T-Bar 훈련을 통해 선수들에게 스윙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김용달 코치는 야수들의 타격 모습을 촬영한 후 키네마틱스퀀스를 중심으로 선수들과 함께 1대1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학길, 차명주 코치는 스로잉 프로그램을 통해 피칭 기본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했고, 1루 베이스 커버, 더블 플레이 수비, 번트 수비 등 구체적 상황에 대비한 수비 훈련도 함께 실시했다. 또한 투구 모습을 촬영한 후 동작결정 분석을 활용해 선수들과 함께 투구 자세에 대해서 분석하고 논의했다.



또한 류지현, 장원진, 강성우 코치는 수비 시 기본자세, 풋워크, 송구 동작, 타구 처리 플레이 등 포수/야수 수비 전반을 집중 교육하며 유망주 선수들의 기본기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캠프 기간 동안 오전 훈련시간에는 전문 트레이너를 초빙해 성장기 유소년 선수들의 신체를 야구에 적합하게 발달시키기 위한 피지컬 트레이닝을 진행했다. 그 밖에도 부상 방지, 야구 심리 등의 기본 교육과 부정방지, 학교폭력 예

방 등의 인성교육도 실시하여 선수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2차 캠프에 참석한 이현기(서울역삼초) 선수는 "실력이 뛰어난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좋은 자극이 됐고, 레전드 코치님들께 레슨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 특히 영상 분석을 통해서 코치님과 제 타격폼을 리뷰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학교에 돌아가서도 알려주신 부분을 열심히 연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선수들을 총괄 지휘한 장중훈 감독도 "Next-Level Camp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면서 선수들이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것 같다. 캠프를 준비해주신 KBO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캠프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부산 기장군이 기장-KBO 야구센터 내 리틀-소프트볼 구장과 기장군국민체육센터 내 실내체육관 등 훈련시설 일체를 제공했으며, 동아오츠카는 '유소년 셀프 컨디션닝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선수들의 스포츠사이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분 보충을 위한 물과 포카리스웨트를 지원했다.

유소년 선수 육성을 위한 KBO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KBO Next-Level Training Camp는 2월 12(월)부터 29일(목)까지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U-15 / U-16 우수선수를 대상으로 제3,4차 캠프를 진행한다.

김효진/기자

영양군, 육묘기 고추재배 현장관리지도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저온기 고추 육묘상의 적정 온·습도 관리로 육묘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다.

일교차가 심한 고추 육묘시기에 육묘상 온도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저온이나 고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 당부하고 있다.

건전한 고추묘 생산의 적정온도는 낮에는 25~28℃ 정도, 밤에는 15~18℃ 정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육묘장 안의 고온 다습한 조건으로 인해 묘가 웃자라거나 병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관수와 환기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은 많이 주면 웃자라서 병을 초래하고 부족하면 굳어져서 생육이 억제되므로 저녁 때 모판의 상토 표면이 썩양

게 말라 있는 정도가 좋으며, 저온기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번에 뿌리 밑까지 젖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온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육묘 초·중기 신초가 동해를 받아 고사하고 후기 정식기 영하의 온도에서는 잎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만일 육묘 중 저온피해를 받았을 경우 응급 처리로 요소 0.3%(물20L 당 요소60g) 액을 엽면 시비하여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적절한 온·습도 관리로 육묘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고추육묘현장에서 기술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 설 귀성객 손님 맞이 도로, 버스터미널 일제정비 완료

도로 일제정비 완료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대구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과 고향을 찾는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설맞이 도로 일제정비를 완료하고, 연휴 기간 동안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대구광역시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대구국제공항, 동대구역, 서대구역, 대구역,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서부·북부시외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와 주요 간선도로(706개 노선, 891Km)에 대해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도로시설물을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횡단보도, 인도 불법주차 방지와 시민, 귀성객,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볼라드, 탄력봉 점검에 중점을 두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 외에도 변형이 일어난 도로 아스팔트 포장 정비(덧씌우기), 포트홀, 요철이 심한 인도 보수,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맨홀 주변 보수 및 맨홀뚜껑 교체, 도로 절개지 정비, 범안로 고모요금소 하이패스 신설구간 야간 시인성 확보 등 도로 이용자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으며, 설 연휴 기간 중 도로 굴착공사를 제한하고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임시포장 등 안전조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 연휴 기간 강설, 블랙아이스 등 도로 노면 결빙에 대비해 살포기(199대), 배도판(125대) 등 제설장비 사전점검과 제설차재(염화칼슘 2,179톤, 소금 982톤) 확보를 완료했으며, 도로시설물 관리기관별 대책반을 가동

해 선제적 대응 및 상황관리로 도로 안전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동안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버스터미널은 이용객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시설물 관리상태 및 화재예방 관련 비상구 확보, 승·하차장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도로 이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에 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중합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대구광역시 두드리스 및 당직실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시민들과 지역을 찾는 귀성객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빈틈없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소방서,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울진소방서는 2월 3일 죽변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회 관계자 화재예방 컨설팅 및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화재예방 캠페인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 안전사용 홍보를 중점으로 했다.

겨울철 화재위험 3대 난방용품은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을 말한다. 이들 제품은 겨울철 보온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을 야기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전기 난방용품 화재예방을 위해선 안전인증(K마크) 받은 제품 사용, 사용 전 플러그, 전선피복 훼손 여부 확인, 제품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전기장판 위 무거운 물건은 적지 금지

등이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재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약자복지 더 커졌다...영등포구, 어르신부터 돌봄청년, 출산자 식탁 챙긴다

맞춤형 식사 '건강한가(家)' 지원 기준 및 대상 대폭 확대

영등포구가 2024년 민생 밀착형 정책으로 총출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구는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돌봄 등으로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가족돌봄 청년이나 출산자에게 죽, 환자식, 밀반찬 등 식사를 제공하는 '건강한가(家)'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강한가(家)' 사업은 지난해부터 구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후원을 받아 일반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유동식, 저자극식 등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식사를 전달하면서 고령이거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와 안전을 챙기고, 말벗도 되

어 드리고 있다.

올해 구는 저소득 가구 중심이었던 '건강한가(家)' 사업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족돌봄 청년과 출산자에게 확대한다. 지원 기준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자 역시 작년보다 30명가량 늘어난 120명이다.

이를 통해 구는 돌봄 틈새와 사각지대를 메우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부모를 돌보느라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청년, 출산으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산모, 중위소득 가구에게도 구가 '일상 돌봄'을 제공하여 총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암이나 당뇨 환자에게는 환자식, 소화기 질환이나 치아가 안 좋은 어르신

에게는 영양죽, 신장 투석 환자에게는 수분섭취 제한식, 비투석 환자에게는 단백질 함량 제한식, 가족돌봄 청년과 출산자에게는 미처 챙기지 못한 각종 영양소를 챙길 수 있는 밀반찬이 주 1~2회 전달된다. 또한 매주 변경되는 메뉴로 먹는 즐거움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난해 어르신,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건강한가(家)'의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구민분들께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돌봄을 누리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을 강화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나만 알고 싶은 성북구 1인가구 물품대여, '이번엔 뭘 빌릴까?'

서울 성북구가 2023년 시작한 1인가구 물품대여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성북구는 타 자치구 대비 대학교와 상권이 많이 자리한 지역으로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3분의 1이 넘는다. 구는 이와 같은 인구 특성을 반영해, 1인가구 주거 특성상 보관하기 힘든 큰 짐이나, 1인가구가 직접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물건을 대여하고 있다.

사업 시행 전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희망하는 물품 수요를 파악해 미니빔, 침구소독기 등 물품을 구비하고 대여료 1천원에 일주일간 대여하고 있다. 대여는 한번에 최대 2품목까지 가능하며, 다음 예약이 없다면 1주일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23년도 연말부터 늘어나는 물품대여 수요 기대를 맞추고자 28인치 캐리어, 전기히터, 플라로이드카메라, 목어깨안마기, 차량용청소기, 가습기, 인덕션, 중앙라미사지기 등 신규 품목을 추가했다. 구는 물품 대여가 필요한 1인가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여 물품별 3개~5개의 여유분을 구비해 대여 신청에 대비하고 있다.

물품대여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 중인 진OO씨(동선동, 31세)는 "부피가 큰 캐리어나 스타밍청소기, 창문청소기는 혼자 사는 좁은 집에 보관하기도 어렵고 사용 빈도도 낮아 구매하기를 망설였는데 물품대여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어 좋다. 대여 물품의 관리 상태도 깨끗해 청소기 걸레도 새 물건 같았다."라며 "이번 설날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목어깨안마기를 미리 대여해서 부모님과도 함께 사용해볼 계획"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인가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성북구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 중 하나다. 취약 1인가구를 넘어 성북구의 모든 1인가구가 성북에서 만족도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물품 대여를 희망하는 1인가구는 성북구청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누리집에서 물품 대여를 신청하고 청년공간 동선이음(아리랑로50)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대여료 1천 원을 계좌이체 하면 신청한 물품을 빌릴 수 있다.

강성원/기자

서대문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나와



서대문구는 수산물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결과를 얻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관내 업소에서 수거한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감마선 핵종 분석기)'로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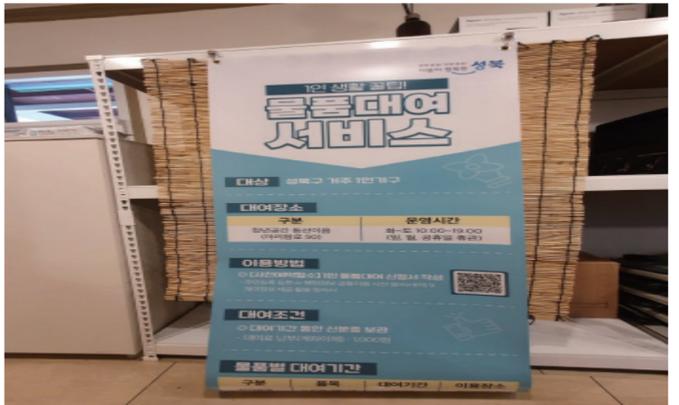
현재까지 구가 수거한 수산물에 대해 모두 '적합(불검출)' 판정이 나왔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대문구보건소 홈페이지(참여광장→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체계는 3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 구 자체 신속 검사 후 일정 기준치(10Bq/kg) 이상 확인될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이 정밀

검사를 하고(2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가 검사(3단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수산물을 포함한 일반 식품의 방사능 적합 기준은 100Bq/kg이며, 기준 초과 시 유통·판매 금지, 해당 제품 유통망 추적 조사 및 회수·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최만식/기자



송파구, 주말농장 '솔이텃밭' 분양...도시농부 대모집!

방이동 일대 총 1,231평 380구획 분양...2월 7일~21일 구민 대상 온라인 접수

송파구가 다가오는 봄에 앞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올해 송파구 친환경 주말농장 '솔이텃밭'을 경작하고자 하는 예비 농부를 모집한다.

구는 도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농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매년 방이동 일대 1,231평 규모의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약 살포 없이 건강한 식자재를 직접 재배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특히, 구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여 불편함 없이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업용수 급수부터 각종 농기

구 대여, 봄·가을 연 2회 친환경 퇴비 제공, 간이센터 조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지원한다.

아울러 '초보 도시농부교실'을 운영하여 베테랑 강사들이 파종법부터 수확 요령까지 14회차에 걸쳐 계절별 농작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한다. 비닐 덮개를 사용하거나 농약 살포가 제한되는 친환경 농장의 특성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초보 농부들을 세심히 배려한 것이다.

일반분양으로 총 330구획을 분양하고 1구획(9m²)당 연간 참여비용은 7

만원, 12월 가을작물 수확까지 텃밭 이용이 가능하다. 위치는 방이동 444-17(1권역), 445-7(2권역)로, 별도 차량 주차는 어렵다.

송파구민이라면 누구든 1가구당 1구획씩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7일부터 21일까지 구청 누리집 온라인 접수 후 전산추첨을 거쳐 일반분양 경작자를 확정한다. 추첨 결과는 오는 23일 16시 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50명을 대상으로 특별분양도 모집한다. 구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으로 10명, 구청사(8층 경제진흥과) 내방으로 40명 선착순 접수하며, 특별 분양 참여비용은 4만 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또는 송파구 도시농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도시농부를 꿈꾸는 구민들께서 일상 속 소일거리로 텃밭을 일구며 건강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친환경의 가치가 커지는 시대, 멀리 가지 않고도 녹지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즐기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흥수/기자



제52회

강진군 청자 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추천 실시

외국인근로자 확보로 도내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24년도에 83명 쿼터를 배정받았다.

도 추천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일정금액 이상

의 연봉으로 향후 2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기업추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히, 도에서 추천할 경우, 가점(30점)을 받음으로서 비자전환이 가능한 점수(200점)에서 30점이 부족한 170점을 받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추천가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도는 시군부서에서 추천한 서류를 검토하여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동반 가족 초청과 도내

정착도 가능하며, 취득 후 5년이상 체류하고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춘 경우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도 취득할 수 있다.

김권중 도 균형발전과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자전환 추천을 통해 도내 숙련기능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음봉산단 700억 원' 새해 외자유치 포문

중국 강풍전자와 반도체용 초고순도 타겟 공장건립 MOU 체결

아산시가 중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초고순도 타겟(코팅 제품) 생산기업으로부터 7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새해 외자유치 포문을 열었다.

박경귀 시장은 6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홍 도지사, 중국 강풍전자 양쉐저(王学泽) 총경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강풍전자는 아산시 음봉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초고순도 타겟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대만 TSMC, 일본 소니, 독일 인피니언 등 글자의 고객사를 확보하며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매출(2022년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강풍전자는 이미 미국·유럽·일본에 진출해 15개의 생산공장을 갖고 있으며, 한국 첫 진출지로 아산시를 선택했다.

강풍전자는 700억 원(약 5,300만 달러)을 직접 투자하며, 20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해 일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강풍전자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아산시 외투단지 100% 입주 상황을 고려해 음봉산단에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박경귀 시장은 "지난 1월 8일 방문에 이어 오늘 신속하게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산시는 수출 1위 도시로서 이번 투자는 삼성디스플레이·SK 등 내수시장뿐 아니라 미국·유럽 수출도 도모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풍전자는 인주·탕정 외투단지에 이어 음봉외투단지 지정을 위한 첫 번째 기업 유치이며, 그간 유럽·미국·일본 기업을 유치해 왔는데 이번 강풍전자를 계기로 중국 첨단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가칭)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신설 추진과 관련 일찌감치 전담팀구성을 마치고, 유치 논리 및 전략 개발 마련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6일 충남콘텐츠기업센터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충남연구원, 각계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담팀(TF) 킥오프(kick-off)회의'에 이어 '이민청 유치 전략 토론회(세미나)'를

충남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속도 낸다

각계 전문가 초청 이민청 유치 전략·지원방안 모색 및 결의 다져

개최했다.

앞서 김태홍 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이민청 유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달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안호 경제기획관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아 4개 반(8개 부서), 4개 유관기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번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범정부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홍보·유치논리 개발·유치전략 모색 등 반별 역할분담을 통해 유기적 협조와 체계적 대응으로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전담팀 회의는 이민청 유치 계획 총괄 보고에 이어 각 부서의 유치 추진계획 보고, 국회·중앙부처 대응 방안, 이민청 유치 논리 및 전략 개발, 유치 관련 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략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충남연구원 윤항희 박사가 '충남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경제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세미나)는 전세경 공주

고대 교수, 김의영 백석문화대 교수, 고인석 호서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공감하고, 도의 현황과 특성에 부합한 이민청 유치 전략 및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전 정무부지사는 "이민청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효과가 상당하고, 산학관 협력 및 도 외국인 정책과 연계 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유치 홍보 및 전략 개발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민관이 함께 민생경제 현안 점검 및 대책논의

5일 충청북도 민생안정 비상경제 대책회의 개최

충청북도는 2월 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도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장과 주요 민간 기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민생안정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민·관이 함께 민생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설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유통기반의 성수품 수급 및 할인 추진 상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경기둔화로 침체가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에 따른 정부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충청북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내수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물가안정 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30개 사업을 실국별로 추진하거나 발굴했으며, 필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

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금리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24년 만기도래 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1년 상환연장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화·관광, 농산물 등 소비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한 '문화소비 365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한 숙박 할인 및 '충북 일탄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와 함께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를 상반기 동결시키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점포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 유관기관에서는 자체 추진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지원 상시 전환 사업 등을 공유하고, 소상공인 대상 밀키트 개발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를 건의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최근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도민들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답례품 구입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

태백시,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준공식 개최

태백시는 오는 7일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해 총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건립된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이번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2,086㎡ 규모로 준공됐다.

시설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위치하며, 2층에는 다목적 가족교류·소통공간, 언어발달실이, 3층에는 가족센터, 가정폭력상담소가, 4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이 위치한다.

가족센터·가정폭력상담소·다함께돌봄센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이 3월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준공에 따라 태백시 관내에 산재되어 운영되던 가족 프로그램 등 복지서비스가 한곳에서 운영 될 예정이다"

라며, "향후, 다양한 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송파구 가락시장 찾아 설 명절 민생물가 점검

오세훈 시장이 설 연휴를 앞둔 6일 오후 2시,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체감물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

이날 오 시장은 문영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수산물·축산가계 등 다양한 점포를 돌면서 설맞이 제수용품 가격 동향을 물어보며, 시장 상인들의 매출 현황을 점검했다. 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설 연휴 기간 외에도 가락시장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 시내 전통시장 16곳과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물 등 모두 25곳을 대상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 35개 주요 성수품 소매비용에 있어 전통시장의 평균 구매 비용은 22만 5604원으로 25만 6200원의 대형마트보다 12% 저렴한 것이

로 나타났다. 가락시장에 위치한 가락물의 경우 20만 6657원으로 대형마트에 비해 19% 저렴한 편이며, 특히 대추, 밤과 같은 임산물과 두부, 쌀 등의 가공식품이 저렴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 이동한 오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주거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시 산하 공기업·출연기관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새해 업무계획을 차례대로 청취했다.

먼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친환경유통센터 통합물류정보시스템 재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오 시장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맞춰 추진하고 있는 유통, 물류, 데이터 혁신을 통한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택지개발을 통한 고품격 도시 조성 선도 주택공급 목표달성을 위한 자산매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주택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주거 안정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원 등을 보고받은 오 시장은 지역 특색을 살려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지원사업' 확충 방안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 현황 등을 확인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최광수/기자



제주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강화 추진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공공·민간)대상,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 점검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점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288개소, 공공개방화장실 7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추진 내용은 ▲지속적인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전 점검 수시화 ▲민간 개

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지원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이며,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교육을 1월 31일 실시한다.

점검은 제주시 14개·읍면동 26개 부서,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진행하며, 화장실 내 환풍기, 벽면의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난해 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1,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

곽건/기자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 설 명절 맞이 화재취약시설 지도·방문

다중운집 시설 등 화재예방 순찰 및 소방력 전진 배치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이 설 명절을 맞이해 영광군 소재 '영광터미널시장'과 도내 요양원에 방문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 많은 사람이 찾는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전방을 살피고 화재 위험요인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홍영근 본부장과 기관장 영광소방서장은 상인회 관계자로부터 영광터미널시장 현황 및 안전대책을 청취한 후 직원,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은 ▲화재취약부 예방지도 ▲전통시장 상인중심의 자율적 화재예방관리 ▲주택용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등이다.

전통시장은 시설 특성상 미로식 통로와 밀집된 점포 등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형 화재로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철저한



화재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영광군 소재 '은빛고은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도민 온정나누기도 함께 진행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전통시장과 요양

원은 대형화재 및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한 설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과 대응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종배/기자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고령자 주거 특화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보고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해 왔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

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달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용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빙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치료실 등 특화시설과 함께 자치구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소·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하여 의료, 건강, 복지 등 지역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

최광수/기자

Art Valley ASAN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경북교육청,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동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경북교육청은 6일 구미시에 있는 호 텔금오산에서 117개 사업 학교 교장과 교육복지사 등 관계자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자율적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 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구대학교 조선미 교수의 특강과 사업 운영 사례관리, 성장 사례, 우수 프로그램 발표와 더불어 특색프로그램 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

경북교육청은 2006년 4개 지역 37개 기관에서 시작해 꾸준한 확대를 거



쳐, 현재 117개 학교, 11개 교육지원청 등 총 128개 기관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을 바탕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

선, 학습 결손 예방, 정서치유 등 통합 교육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외계층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미래형 진로 교육 역량 강화 나선다.

진로 전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은 6일부터 7일까지 청송군에 있는 소노벨 청송에서 중등 진로전담교사.교감.교육전문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미래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도내 진로전담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미래 직업 트렌드 이해와 진로 지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연수에서는 △첨단 기술 분야 유망직업 △미래 사회

경제 시스템 △미래 농업 유망직업 △미래 식품산업 유망직업 △지역 특색 산업 유망직업 △미래 사업 트렌드와 진로 지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경북교육청은 2020년부터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자체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미래 신산업 △지역 특색 산업 △미래 진로 교육 변화 등의 영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진로 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라며, "각종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대응력을 향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 인성교육 협력 강화

협력 기관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8곳으로 확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인성교육 협력 기관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인성교육 협력 기관으로 울산남부경찰서, 울주경찰서, 대한적십자사울산광역시지사, 국제청년미디어기자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이 새로 참여한다.

지난해 1교 1인성 브랜드로 강남지역 초·중학교 93교에서 '마음 길을 여는 인성교육', '생글생글 인성운동', '사랑의 사제3 운동' 등 학교 단위 자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울산교육협력위원회 등 협력 기관 4곳이 인성교육을 도왔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부터 서로 나눔교육지구 협력사업으로 울산남구청, 울주군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학생리더십어울림프로그램, 고교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은 학습, 심리정서, 복지 등 복합 위기를 겪는 학생에게 진단, 상담, 치유, 학습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성 중심 학생맞춤형통합지원 프로그램이다.

'학생리더십어울림프로그램'은 강남지역 중학교 10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인성을 갖춘 미래 지도자(리더)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교탐방 프로젝트'는 중학생에게 고교탐방 기회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인성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인식 교육장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 스며드는 살아있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부산교육청, 예비 초·중·고 학부모 교실 3차례 운영

자녀의 상급학교 적응과 진학지도 돕기 위해 마련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를 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 초·중·고 학부모 교실'을 3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학부모 교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첫 교실은 2월 19일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예비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다. 경희여중 현직 교사이자 EBS TV 강사인 강용철 교사가 '미리 알아보는 중학교 생활, 중학교 공부를 위한 반올림 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예비 고등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김유리 대입 지원관과 최경혜

양정교 교사가 '성공적 대입을 위한 고교생활', '대입 준비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주제로 각각 강의에 나선다.

세 번째 교실은 29일 오전 10시 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에서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은영 광안초 교감이 '꽃 같은 아이들의 첫출발! 1학년 학교생활 레시피'를 주제로 강의하며,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학부모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참가 희망자는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학부모지원포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지원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희태/기자



경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완성학교 연수

2024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적 연계사후 컨설팅제 도입 예정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사천 용남고등학교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완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를 열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공간혁신,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복합화, 안전을 핵심 요소로 40년 이상된 낡은 학교 시설을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연수는 2021년 대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완성(예정)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연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육과정 방향 연수 ▲우수학교 사례 발표 ▲학교별 특화 공간의 교육적 활용 방안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대상을 받

은 사천 용남고등학교에서 연수를 개최해 공간의 교육적 활용을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 대상학교 중에서 지난해 5개 학교가 완성되었고, 올해 30개 학교가 완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완성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사후 컨설팅제를 도입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은 "2021년 대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제때에 교육과정 연수를 열어 완성도 높은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파주교육지원청, 설 명절맞이 '청렴할 용기 UP!' 청렴 행사 진행

파주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할 용기 UP!"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2024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출근길 직원 대상으로 새해 청렴 다짐을 적어 게시하도록 하고 청렴 문구와 새해 행운 문구가 적힌 포춘쿠키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마무리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이 청렴 서한문을 낭독함으로써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자 했다.

참여한 직원들은 아침 출근길에 청렴다짐을 적어보며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청렴 포춘쿠키를 열어보며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부패는 항상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청렴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라며, "이번 설 맞이 청렴 행사를 통해 더 청렴한 한

해로 나아가는 파주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회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대한민국의 **다**움진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024. 2.22(목) ~ 25(일)

울진군 후포항 일원

맛있는 대게 여행, 후포항에서 모이자~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후원 | 한수위주 | 한울원자력본부

서울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탄생·육아'에 올해 1조8천억 원 투입

양육자의 행복지에 초점을 맞춘 전국 최초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완화,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해온 서울시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라는 새 이름과 함께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22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 원 상당 바우처)는 지원대상에서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설 기

준 6개월 거주)을 새해부터 폐지했다. 작년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초포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해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공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아이 볼 시간이 없다"는 양육자들의 호소도 저출생 문제에 있어 중요한 화두. 많은 양육자들이 엄마아빠 모두 육아에 참여하려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 같은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태백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저출생 극복 노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2026년부터 국내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 관련 지표가 평가 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을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태아 자녀난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태아) 양육가정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부터 놀이, 편의까지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

소息的식을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6개월 전→1년 전으로 확대해 예비부부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전국 시행을 이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전국 최초로 시작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보다 많은 출산맘이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 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을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 원(0살), 35만 원(1살)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태아 자녀난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태아) 양육가정이라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자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환경부터 놀이, 편의까지 아이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방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사업'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 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독서자별레,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올해 130개소로 확대된다.

아이 키우는 양육자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1년 만에 약 18만 명이 이용한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작년 6천여 가구가 이용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이용 가구(6천→1만)와 이용 횟수(6회→10회)를 모두 확대해 가사 부담을 덜어준다.

1년 만에 57개 업체가 동참한 '서울 키즈(Kids)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부딪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참여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최근 3년 간 939개소 감소(17%↓)), 어린이집 밀집도, 정원충족률 등을 검토해 600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올해 3월부터 재정·인력 등을 지원한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 누구나 필요할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도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영유아 수 감소에도 양육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울형 모어린이집'은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320개 어린이집)로 확대한다. 긴급 특

새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요일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올해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 한부모, 임신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으로, 외국인력 유입과 다가를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수도권 중견기업 (주)동보, 대구에 미래차·로봇 분야 대규모 투자

대구광역시 2월 6일 오후 5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주)동보와 금호위터폴리스 내 미래차·로봇 부품 제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동보는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력으로 개발해 생산하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신산업인 로봇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금호위터폴리스 내 32,711m²(9,912평)에 1,000억 원을 투자해 미래차 및 로봇 부품 제조공장을 대구에 새롭게 건립할 계획이다.

미래차 부품 전문기업으로의 전환과 로봇 부품 분야로의 신규 진출을 위한 대구 신설 공장은 2024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작해 연내 준공 후 2025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동보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지엠, 닛산 등에 고품질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며, 국내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로터 어셈블리, 로터 샤프트 등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 생산 거점을 마련해 2027년까지 대구 공장에서만 매출 1,500억 원 달성하고 함께 기업 전체 매출 7,000억 원을 목표로 글로벌 미래 모빌리티 부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주)동보는 초정밀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로봇용 주요 부품을 개발해 로봇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구체화했고, 이번 투자를 통해 대구 신공장에 로봇 부품 전용 라인을 구축해 향후 산업용 로봇 부품 핵심 기술 적용 및 양산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지만 (주)동보 대표는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차·로봇 등 신산업 육성정책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로봇 분야 부

품 개발 및 양산에도 박차를 가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수도권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인 (주)동보의 대규모 투자가 대구 미래 모빌리티 및 로봇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동보가 대구에서 잘 자리 잡아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미래차·로봇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스톱 투자지원을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